

權 域 印 藪

任 昌 淳

(泰東吉典研究所長)

亦梅와 葦滄

近代에 중국으로부터 새로이 진전되는 學藝를 우리나라에 수입한 자중에는 教養 높은 譯官들의 공로가 매우 컸다. 藕船 李尙迪, 小棠 金奭準은 그 대표라 할 수 있거니와 亦梅 吳慶錫도 文化交流史上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字를 元程, 號는 亦梅, 鑲齋 또는 天竹齋라 한다. 일찍부터 譯官으로 北京에 왕래하며 吳大澂, 葉潤臣, 溫忠翰, 濟祖蔭등 당시 중국의 유명한 書畫 및 篆刻의 大家들과 交遊하여 그곳에서 많은 金石의 拓本과 書畫眞蹟을 수입하여 그의 識見을 높혔고 그의 梅畫는 특히 중국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에 있어서 더 큰 지식을 얻은것은 書畫古美術에 대한 鑑識眼이었다. 그는 그 知識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歷代書畫史의 정리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그는 49세인 高宗 14년에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이를 완성하지 못하고 마침내 아들인 葦滄 吳世昌에 의하여 遺志를 이루게 되었다.

葦滄은 亦梅의 長男으로 字는 仲銘, 葦滄은 그의 號다. 1864年 出生, 大韓帝國 博文局 主事, 漢城週報記者, 農商工部 參議, 遞信局長등을 역임하고, 開化黨에 들어가 革新運動에 활약하였고 다시 天道教에 들어가서 抗日運動을 벌이었다. 합병후에 己未三一運動을 지도하였다. 해방후에 6.25동란중에 1953년 90세의 장수로 작고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書藝와 鑑識에 조예가 깊고 특히 篆書와 篆刻은 근래의 독보의 경지에 달하였다. 그의 編著한 書畫史整理의 大業으로 「權域書畫徵」은 1928년에 공간되어 三國以來 韓末에 이르기까지의 書畫人名의 辭典과 그들의 作品을 最大限 망라한 大作으로 책이 나온지 40년이 넘은 오늘날까지 아직 이를 능가할만한 著書가 없었으므로 斯界의 唯一한 指針書가 되어있다. 또한 羅麗古代로부터 李朝末期에 이르기까지의 名人의 遺墨을 모아서 帖으로 만든 「權域書彙」를 編著한바 本書는 현재 서울大學校圖書館에 保存되어 있다.

權域印藪의 原本

여기에 소개하려는 權域印藪는 또한 公이 일생동안

에 걸쳐 수집한 것으로 前人未踏의 황무지를 개척한 大業이다. 이것은 거의 모두가 實印을 찍은 그대로를 冊子 또는 書蹟中에서 오려모은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墨蹟을 모으는것 이상의 어려운 일이다. 글씨는 옛사람의 筆硯을 매일처럼 손에서 떼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그 양에 있어서 많이 流傳될 수 있으나 圖書란 그렇게 흔히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손쉬운 것은 書籍에 찍은 收藏印에서 구하는 것이요, 書畫에 찍은 것은 귀하기도 하려니와 또한 그 도장을 떼어버린다면 그 遺品の 가치를 말할시킬뿐 아니라 그 작품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에서도 참아 떼어낼수가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수집은 실로 難事中的 難事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不得已한 것은 印影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고 붓으로 模寫하여 놓은것이 數十種에 달하였다.

이 原本이 吳世昌氏家에 保存되어오다가 年前 遺族의 손에서 國會圖書館으로 옮겨 收藏되었다.

印藪는 책으로 된 것이 아니요, 白紙에 印影을 오려 붙인것인데 큰것은 1顆, 작은 것은 2~3顆씩 貼付한것을 모두 4局으로 묶었는데 收錄된 總人數가 891명이요 印影은 3,600여顆에 달한다. 貼付한 印影에는 文字의 判讀을 記入하지 않았고 따로 兩面野紙로 책을 만들어서 原印譜의 順序에 따라 姓名, 字號등을 記錄하고 橫欄을 긋고 各人에 대하여 各文獻을 조사하여 生卒年과 官歷등을 略述하였다. 排列한 順序는 姓別로 정하고 姓은 字畫順에 따랐기 때문에 丁氏, 千氏에서 시작하여 權氏에 이르기까지 모두 71姓이다. 그리고 같은 姓에는 또 本貫別로 나누었으니 金氏의 例를 들면 慶州 金氏, 光山 金氏, 安東 金氏등의 차례로 되어있다. 이책에서 결점을 지적한다면 카아드식의 排列이었기 때문에 篆刻을 年代順으로 감상 연구할 수 없는 것과 印材에 대한 表示가 전연 되어있지 않았으며, 또한 各印의 傍刻, 곧 側面에 附刻된 文字의 拓本은 하나도 볼수 없는 점등을 들수 있으며 名人들의 圖書중에서도 빠진 것이 너무 많은 점, 이를테면 安平大君, 李彥迪, 權機등은 印影의 遺存을 볼수 있는데도 여기서는 누락되었다. 그러나 이런것은 一個人의 손으로 두루 수집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앞으로 여러사람의 손으로 이의 補充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印影에 나타난 人物의 略歷을 적은 책에는 그 表紙에 編者의 손으로 「權域印藪

千字를 篆文變鉤로 그리어 뒤에 表題用으로 준비하여 놓았다.

同書의 影印本(國會圖書館 發行)

國會圖書館에서는 이 책을 入手한 후 곧 影印에 着手하여 먼저 篆文全部에 대하여 判讀한 印文을 各印影下에 붙이고 各人의 略歷은 原文의 未備한것을 增補하여 印影 첫머리에 붙이고, 따로 姓名과 字號別로 索引을 넣어 考閱에 편리하게 하고 附錄으로 原編者 吳世昌氏의 印譜 232顆를 添加하였다. 原文 484面, 附錄 75面 總 560面의 四六倍版의 豪華裝幀으로 出版되었다. 처음부터 限定出版이요 非賣品이었기 때문에 愛好家의 손에 고루 나누어지지 못하여 그 再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만일 이를 時代順으로 排列을 바꾸고 初原本에서 漏落된 것을 增補하며 접하여 私印이외에 따로 官印까지 첨부하여 우리 나라의 印刻의 集大成이 될수 있다면 더욱 斯界의 큰 공헌이 될 것이다.

本書의 價値

印章은 書藝와 함께 처음 중국에서 발생한것으로 일찍 戰國時代부터 그 遺物이 傳하고 있으며 秦漢이후로는 위로 帝王의 玉璽로부터 아래로 官府의 文書에까지 信證으로 印章을 사용하였고, 일별 개인의 私印도 만들기 시작하여 모양이나 字體도 多樣하게 발전되어 왔으나 그 自身이 예술적가치를 인식했다든가 또는 이를 감상하려는 의식은 갖지 않았던듯하다. 그러나 漢代以後로는 글씨가 隸書에서 草書, 楷書등으로 변모되어왔기 때문에 篆書는 벌써 실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印刻과 함께 새삼스럽게 秦漢以前의 遺物에서 배우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다시 古印을 鑑賞研究하는 風이 일어났다. 印章은 물론 篆文에 대한 지식이 앞서야 되겠으나 方寸의 한정된 틀안에다 제한된 數의 文字를 排置하는 것이므로 圖案的 性格을 띠고 있어서 文字와 그림과의 사이를 調和시켜서 美를 나타내는 예술적작품이라 할 수 있다. 明清시대부터는 많은 篆刻家들이 輩出되어 이 방면에 새로운 研究와 발전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많은 印譜가 편집되었다. 明 王常의 集古印藪, 吳元滿 등의 集古印選, 汪關의 寶印齋印式 등의 古印摸刻選이 刊行되었고 個人의 作品集으로 蘇宣의 蘇氏印略, 何震의 何雪漁印選, 胡正言의 印存初集, 衛承芳의 存古齋印譜 등 많은 書籍이 나왔고 考證學과 金石書藝의 발달과 辨進되어 清代末期에 이르러서는 陳鴻壽, 吳熙載, 鄧石如, 趙之謙, 吳昌碩 등의 篆刻大家가 쏟아져나와, 秦漢의 印泥는 물론 멀리 殷周의 鍾鼎文의 拙朴·健嚴의 妙를 刀法으로 살리는 등

시에 다시 現代의인 감각을 곁들여서 方寸의 石印위에 百花난만의 美를 구현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의 印章

다른 예술이나 학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印刻도 역시 중국을 뒤따라 갔다. 漢四郡時代의 遺物인 「樂浪太守章」을 위시한 漢郡縣의 官印과 封泥가 平壤을 중심으로 대량 出土되었고, 中國記錄에 「三韓諸國의 郡長에게 印綬를 주었다」하였으니 당시에는 中國官吏뿐 아니라 우리 本土人들도 저들에게서 印章을 받았은즉 本土人 自身들도 이를 刻成 使用했음이 推測된다. 그런즉 우리의 印刻史도 2,000년을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하여 官印은 三國以來 高麗·李朝까지 계속 사용되었을 것이나 현재 전하는것은 數點의 高麗時代의 印影이 最古의 것이며, 李朝로 내려와서는 太祖初期부터 많이 남아 있다.

私印의 경우에는 물론 高麗時代부터는 사용되었으리라고 본다. 宋·元과의 文化交流가 잦았을뿐 아니라 고려 말기에는 우리 학자들이 北京에 長期滯留하면서 그곳 名士들과 생활을 함께 하였다. 당시 趙孟頫, 虞集, 柯九思, 歐陽玄 등이 사용한 圖書가 남아있음을 보아 李齊賢, 李穀, 李穡등도 圖書를 사용하였음이 상상되나 현재 전하는 印影은 보이지 않는다. 간혹 古墨蹟에 사용된 것이 보이는데 예를들면 李奎報의 글씨라하고 「白雲山人」의 圖書가 적혀있으나 圖書는 물론 글씨까지 信憑性이 없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의 私印은 사용되었을 것으로 믿으나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하였을 뿐이다.

李朝初期부터는 安平大君이 사용하던 諸圖書를 위시하여 畫家의 安堅, 學者의 李彥迪 등의 落款用, 藏書用에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壬亂이전의 것은 구해보기가 매우 힘들다. 이 時期에 사용된 印材는 주로 木材를 썼고 石材를 쓴것은 後期에 속한다. 篆文은 初期의 것은 매우 우수한것이 많은데 이것은 역시 元의 趙孟頫의 書風이 盛行했던것과 같이 그들의 篆刻의 풍을 받아들여 優雅하고 典實한 字體를 이루었다. 그러나 壬亂이후에는 書藝가 침체不振함과 함께 篆書에 있어서는 더욱 이렇다할 名家가 없었다. 그리하여 篆刻도 겨우 그 형태를 갖추었을 뿐이요 예술적 가치 같은것은 애당초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孝宗·顯宗때에 이르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곧 眉叟 許穆이 중국으로부터 夏禹의 글씨라는 峴巖山石刻의 拓本을 入手하여 이를 기본으로 篆書를 공부하고 다시 「金石韻府」를 얻어서 여기에 나타난 古文을 가지고 古篆을 연구하였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夏禹의 石刻이란 것은 後人의 偽造였고 金石韻府에도 많은 僞字가 들어

있는 것을 眉叟는 몰랐다. 다만 그의 奇古癖이 이에 心醉되어 眞僞의 攷證을 거를라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는 運筆에 있어서 在來의 篆法을 전연 뒤엎고 새로운 楷行式의 筆法을 장안하여 독특한 경지를 개척하였다. 그는 이를 글씨에만 그쳤을 뿐 아니라 다시 篆刻에 옮기는데도 역시 筆法 그대로를 刀法으로 살려서 먼저 自印 數十顆를 만들었다. 이 篆法과 刻印의 風은 곧 그를 追從하는 後輩들에 의하여 널리 風靡되었으니 朗善君 李侯, 具東岳, 權珪 등은 그 대표라 할 수 있다. 同時에 書藝의 大家로 西谷 李正英 一門이 있었는데 그는 王에게 「許穆流의 篆法은 文字의 正道를 저해하는 것이니 그 流布를 막아야 된다」고 進言까지 하였다. 眉叟의 印譜인 「眉叟圖書帖」이 있고 西谷一門의 印譜로 「靜几清玩」이 있어 두가지의 印影이 거의 모두가 이 槿域印藏에 收錄되었는데 그 兩者를 대조하면 眉叟流의 작품은 비록 篆法에 어긋나는 것이 많고 刀法도 常軌를 벗어나서 恣意驅使하였을망정 創意性에 富하며 神韻이 飛越하여 氣脈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靜几清玩」에 실린것은 運筆이 鈍重한 在來式 篆法에서 한결음도 발전을 볼수 없는데 다만 그 형태에서 鍾形, 鼎形, 十字形, 太極文形 등 技巧을 부릴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니 하나도 創意的인 것이 없고 字書의 健嚴味도 없어 도리어 옛 傳統의 水準에서 後退되고 말았다. 이 兩派는 극히 對照的인 동시에 또한 保守와 革新을 대표하는 思想的인 氣流를 書藝와 篆刻에서 보여주는 좋은 例가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印刻이 學問의 考據를 겪어 그 正軌에 들어선 것은 純祖 이후 곧 清朝의 乾隆·嘉慶年代의 文化交流에서 시작된다. 金履喬, 金魯敬, 申緯, 徐榮輔 등이 중국에 왕래하면서 갈적마다 그곳 名家들에게서 自己들의 圖書를 새겨오고 또 知舊들의 선물로 들여왔으며 동시에 金石書藝에 대한 知識이 넓혀졌기 때문에 篆刻에 있어서도 在來의 習氣가 차츰 除去되고 昧를 벗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에게서 刀法을 배워서 篆刻을 시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헌의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여 具體的인 敘述은 앞날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吳世昌, 金台錫 같은 大家가 있으나 이는 合併後에 속하는 인물이므로 여기서는 論外로 한다.

다만 以上에서 서술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1. 李朝初期를 元·明의 換播時期 2. 壬亂前後를 沈滯期 3. 孝·顯時代를 變革期, 4. 純祖以後를 啓蒙期로 時代를 假定할 수 있다. 앞으로 斯學의 專門家에 의하여 印譜가 재정리되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印刻史의 出現이 기대된다. 이런 의미에서 本書는 過渡의 橋梁의 위치에 서 그 價値가 높다고 본다.

海外學術雜誌購讀案内

KOP Subscription Guide

⇒敝社는 国内唯一의 罽스크립션, 에이전시로서 文化公報部의 許可(第50号)를 얻어 外國定期刊行物 予約業務를 開拓하여 왔으며 數年間 유네스코 韓國委員會의 傘下 輸入代行機關입니다.

對內的으로는 여러가지 惡條件을 克服하고 業務擴張에 빠른 能率的인 事務體制를 이룩하였으며 對外的으로는 世界의 坊坊曲曲을 카바하는 屈指의 代理店과 巨大한 出版社 1,500餘社와 業務를 提携, 龍大한 海外 罽스크립션, 네트웍을 形成함으로써 時時刻刻으로 變化하는 人文, 科學技術情報의 供給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數量의 多寡를 不問하고 購讀者 諸位의 罽스크립션 인포메이션 리퀘스트에 應하고 있아오니 많은 利用 있으시기 바랍니다. 연락 즉시 案内冊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日本書籍販賣案内《

⇒今般 敝社는 日本 丸善株式會社와 代理店 계약을 체결하고 建築設計資料集成 시리즈를 独占 販賣하고 있아오니 고객제외의 많은 利用있으시기 바랍니다.

書名	著者名	出版社名	日 價
建築設計資料集成 第一卷	丸善 編	丸 善	¥ 3,000
建築設計資料集成 第二卷	丸善 編	丸 善	3,500
建築設計資料集成 第三卷	丸善 編	丸 善	3,500
建築設計資料集成 第四卷	丸善 編	丸 善	3,700
建築設計資料集成 第五卷	丸善 編	出版準備中	
建築設計資料集成 第六卷	丸善 編	丸 善	4,800

(기타 建築·土木關係書籍 多量 販賣中)

 丸 善 株 式 會 社

韓國總代理店

 韓國海外出版物株式會社

서울特別市 鍾路1街 71 永韓벨딩

雜誌 業務部 74-3783

書籍 販賣部 73-4262